



SK와 삼성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양팀 감독, 선수들이 상대팀의 예상승수를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있다. 왼쪽부터 삼성 진갑용, 박한이 선수, 선동열 감독, SK 김성근 감독, 김재현, 박경만 선수. /연합뉴스

KS 우승반지 누가 낄까

SK-삼성 오늘부터 7전4승제 한국시리즈 돌입



<레밍>

“모든 준비를 마쳤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이다”(김성근 SK 감독). “내가 감독이 되고 나서 SK와 포스트시즌에 한 번도 맞붙지 않았었는데 좋은 경기를 하겠다”(선동열 삼성 감독).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대망의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놓고 가을 잔치 마지막 무대에서 격돌한다. SK 김광현과 삼성 레밍이 선발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SK가 1위로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SK와 플레이오프 판문을 통과한 삼성은 15일부터 7전4승제의 한국시리즈 대결을 펼친다. 1, 2차전은 문학구장, 3, 4차전은 대구

구장에서 승부가 끝나지 않으면 5~7차전은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아신”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SK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두 차례 정상에 올랐고 올해 정규리그 1위로 한국시리즈에 선착했다. 반면 삼성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지난 2006년 이후 4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2000년 창단된 SK와 프로야구 원년 멤버인 삼성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하기는 이번이 처음. 가을잔치에서 유일하게 맞붙었던 2003년 플레이오프에서는 SK가 삼성에 2전 전승을 거뒀다. 올해 정규리그 맞대결에선 SK가 상대전적 10승4패의 박빙 우위를 보였다. SK는 지난해 26일 정규리그를 마치고 3일 휴선 1일 휴식 일정으로 한국시리즈를 기

다러왔다. 재충전한 투수들은 심상한 어깨를 자랑하고 상대 전력 분석도 마쳤다. 실전 감각이 떨어진 것은 약점이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두산과 플레이오프에서 5차전까지 모두 1점차의 활투를 벌이면서 선수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다. 올해 시즌 17승으로 다승왕을 차지한 좌완 에이스 김광현과 14승을 수확한 카도쿠라가 SK의 원투펀치로 나선다. 불펜은 동맹이인 이승호·류우와 정우람, 전병우, 송은범과 “특급 마무리” 정대현이 뒤를 받친다. 특히 한국 최고의 ‘명포수’ 박경만이 빠어난 투수 리드를 자랑한다. 타선에선 정규리그에서 3할 타율을 올렸던 김강민과 박정권, 최정이 삼성 공략에 앞장선다. SK에 도전장을 던진 삼성은 레밍, 차우찬 장원삼, 배영수가 선발전에 포진했다.



<김광현>

삼성은 정규리그때 5회 리드시 53승을 포함, 58승2패를 기록한 견고한 불펜이 플레이오프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특히 믿었던 좌완 권혁이 기대에 못 미쳤다. 다행히 배영수가 슬러의 ‘수호신’으로 떠올랐고 마무리 안지만이 제 몫을 해준 가운데 팔로워 부상으로 2군에서 컨디션을 조율해왔던 오승환이 마운드에 가세했다. 타선에선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1개 등 타율 0.381, 6타점의 맹타를 휘두르며 MVP로 뽑힌 박한이와 타율 0.471의 불발방망이와 뛰어난 수비를 보여준 하위타선의 ‘핵’ 김상수가 공격을 주도한다. /연합뉴스

이세돌·쿵제... 반상의 고수들 탈락

삼성화재배 이변... 김지석·허영호·박정환·구리 4강

한국과 중국의 랭킹 1위인 이세돌과 쿵제가 동반탈락하고 신예들이 약진한 이변의 연속이었다. 14일 대전시 유성구 삼성화재 유성연수원 특별대국실에서 열린 제15회 삼성화재배에서 한국은 김지석 7단(21세), 허영호 7단(24세), 박정환 8단(17세) 등 젊은 피 3명이 4강에 오르며 구리 9단만 승리한 중국을 압도했다. 이변은 김지석 7단이 일으켰다. 세계대회 4관왕 쿵제 9단을 만난 김지석은 중반까지 백대마가 흑의 공격에 시달리며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초읽기에 쫓기면서 중앙공격을 멈추고 실리로 돌아선 쿵제의 실책을 틈타 대마를 살리며 분위기를 반전에 성공했다. 이후 조금씩 서두르는 쿵제의 공격을 침착하게 막아내며 차이를 벌려 172수만에 흑의 항복을 받아냈다. 이세돌에게만 2패를 당했을 뿐 올해 국제대회에서 16승을 거두며 승률 88.8%의 초강세를 보이던 쿵제는 김지석이라는 복병에 겨우 2연패

에 실패했다. 허영호 7단은 중국의 왕웨이 6단에 179수만에 흑불계로 꺾고 4강의 한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의 첫 세계대회 4강이다. 원성진과 박정환의 형제대결에서는 박정환이 승리를 거뒀다. 올해 제2회 비씨카드배에 이어 생애 두 번째로 세계대회 4강에 오른 박정환은 16세 6개월에 동양증권배에서 우승한 이창세에게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세계챔프를 노릴 수 있게 됐다. 한국랭킹 1위 이세돌 9단도 쿵제와 함께 이변 대회 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1983년생 동갑내기 구리 9단과 대결한 이세돌은 시종 열차락위처럼하는 접전을 벌였으나 막판에 실족하며 246수만에 백으로 불계패했다. 결승 진출을 놓고 김지석은 구리와, 박정환은 허영호와 대결한다. 3전2선승제의 준결승은 11월 1일, 2일과 4일에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삼성화재배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연합뉴스

빛고를 광주서 세계장애인 탁구대회

46개국 500여명 참가... 26일부터 8일간 열전

빛고를 광주에서 세계장애인탁구 선수들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2010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26일 개회식을 갖고 내달 2일까지 열주체육관과 빛고를 체육관에서 8일간의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는 국제탁구연맹(ITTF)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탁구협회, 광주장애인체육회, 광주장애인탁구협회가 주관하며 호주, 러시아, 중국 등 46개국 5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경기종목은 휠체어와 스탠딩 분야로 나뉘며 장애 정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분류된다. 선수들은 휠체어와 스탠딩 종목 선수들이 맞붙는 오픈전 경기를 시작으로 개인전, 단체전에 메달 경쟁을 펼치게 된다.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올림픽 출전 티켓이 걸려있는 만큼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2006년 스위스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차지했던 한

국은 이번 대회에 32명의 선수를 파견해 최후의 자존심 지키기에 나선다. 광주대표 5명도 태극마크를 달고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광주 국제 OPEN탁구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영진, 조재관, 김재택, 김진규와 2009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선수권 개인전·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공홍도 출사표를 던졌다. 이전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서 막바지 훈련 중인 한국 대표팀은 오는 23일 광주로 이동해 적응 훈련을 갖는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이경배 사무처장은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 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장애를 넘어 최고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과 이번 대회에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는 지난해 ‘2010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의 프레데리코 치러진 광주국제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몸값은 2000만달러”



<레밍>

MLB닷컴 평가 올해 미국프로야구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구단과 장기계약을 한다면 몸값이 2000만 달러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14일(한국시간) 추신수가 이번 오프시즌에서 클리블랜드의 연봉 협상 1순위 선수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평가했다.

MLB닷컴은 “올해 클리블랜드 라인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로 활약했던 추신수가 처음 연봉조정 자격을 얻었다. 구단에서 가장 많은 준비를 하고 협상해야 할 선수”라며 “2011년 연봉으로 300~400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클리블랜드가 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내년 1년 계약만인 아니다. 추신수는 2013년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몸값이 훌쩍 뛰어오를 것

으로 전망된다. 클리블랜드는 다시 한번 추신수에게 2013년까지 장기 계약을 제시할 계획이다. MLB닷컴은 클리블랜드가 추신수와 장기 계약을 하려면 20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년 동안 연봉 지출을 줄여 온데다 올해 가장 적은 관중을 기록한 클리블랜드에게는 큰 액수지만, 기록을 놓고 보면 추신수는 그걸 감히 지어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안토네티 단장은 “추신수는 특출한 선수다. 그는 매년 한계로 지적된 것들을 스스로 넘어서 왔다”면서 추신수와 계약하고픈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산행 안내

10월 16일(토)
▲빛고을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4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5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6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7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8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9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0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1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2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3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4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5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6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7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8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19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0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1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2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3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4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5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6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7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8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29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5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6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7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8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09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0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1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2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3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 314호차·노스페이스의 오서산 야세산행 10월16일(토)